

### 베스트 댓글

cpu내 물리적 연산부가 코어고 코어의 효율을 향상시키기위해

각 코어당 분산처리할 수 있는 기술(=하이퍼스레딩)이 나왔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코어가 여러 작업을 분할하여 빠르게 처리하는것이고

이를 나누었을때 작업의 단위를 스레드라고 칭합니다.

예로 1111111 이란 작업과 000000 이란 작업이 있으면 1코어당 1스레드의 경우 1111111 000000 으로 처리하지만

1코어당 2스레드의 경우 101010101010 처럼 일을 처리하기때문에 마치 코어가 2개 인것 처럼 보이는것이죠.

일종의 착시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스레드 지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때문에

효율이나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일을 할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두명이서 한가지씩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4가지 일을 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2코어는 한명이 두가지씩 해야되고, 4코어는 한명이 한가지씩만 하면 되니까요.

그일이 밥먹으면서 폰 보기 같은 사소한 일이라면 별차이 없겠지만,

수학문제 풀면서 영화보기라면, 애기가 달라지겠죠.

수학문제가 복잡한 증명문제에 영화가 자막 없는 영어 영화라면...

사람 2명이 인당 2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것과

사람 4명이 인당 한가지일을 하는정도의 차이...

머릿수가 많을수록 좋을수밖에 없죠~

